

충무공 김시민 장군 공신 교서 환수 기념 고유제 봉행



〈고유제 봉행 장면〉

지난 2006년 7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립 중앙박물관 앞 광장 특별 제단에서는 MBC의 기획방송과 전국민의 성금 모금운동으로 큰 관심을 불러 모았던 <충무공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 국내 환수 기념 고유제>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약 400여 명의 내외 귀빈, 문중종친, 시민들이 참석하였는데 본 공신교서를 환수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MBC문화방송의 관계자 여러분, 정부부처의 유충훈 문화재청장, 이진우 국립중앙박물관장 외 여러분, 양승조 전안국회의원, 황평오 문화연대 소장 외 여러분, 허용기 김시민장군 기념사업회 회장 외 50여명, 이춘우 김시약장군 기념사업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우리 문중에서는 홍식 대종회장님을 비롯하여 태인 명예회장님, 8명의 각 과 회장님, 당일

전 행사의 도우미로 활동한 안동김씨 사이버학술연구회원 13명, 그리고 과산, 청주, 병천, 전안 등지의 제학공파 종친 약 60여 명, 서울 및 기타 지역 종친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였고 그 외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였다.

MBC에서 마련한 성대하고 아름다운 식장에는 김시민사업회에서 마련한 충무공 영정 아래 일본서 들어온 공신교서가 놓였고, 과산의 능촌종중에서 준비한 제수가 정갈하게 진설되었다. 이날 전 행사 계획과 고유제 진행은 우리 문중회에서 맡게 되어 황용중친(제)이 전달하였고, 행사장 준비 및 고유제 전 후 행사 진행은 MBC의 서경석(노길표) 진행자가 맡았다. 식전행사에서 유충훈 문화재청장은 앞으로 해외에 반출돼 있는 보물급 문화재들의 원

활한 국내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고유제 행사에서 현관과 제관 및 집사들은 과산 능촌종중에서 준비한 관복과 제복을 입고 경건하고 장엄하게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성치경(MBC대표), 아헌관: 김효식(충무공종손), 종헌관: 허용기(김시민기념사업회장), 집제: 황용(제), 축관: 서경석(MBC), 집사: 태욱(제), 복음(제), 제관: 문중화-홍식(대종회장), 태인(명예회장), 학음(제), 영복(제), 영환(문), 전음(제), MBC측-5명, 기념사업회측-5명, 진주 시민대표-1명

이 선무 공신교서는 1604년(선조 37)에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이순신, 권율, 원균, 김시민 등 총 18명

의 공신들에게 내린 것인데 충무공 김시민장군은 2등에 추록되어 받은 것이다. 이 교서를 중 국내에 헌진하는 것은 4부뿐으로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교서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대첩의 상황을 밝히고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한 포상정도를 살펴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가로 226cm, 세로 37.2cm 크기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충무공의 교서는 그동안 과산의 종손가에 약 330여 년간 전수되어 왔었는데 일제시대인 1930년경 유실되었다가 약 80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 역사학자 미우라 히로유키(三浦洋行·1931년 사망)가 한 때 소장했던 이 교서는 지난해 11월 일본 교오토대학의 김문경 교수가 일본의 전문 경매회사에서 발간한



〈고유제 후 일동 기념촬영〉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 찬조금 (2006.5.16~8.25)

30만원: (典) 홍식-경기도 화성
10만원: (冀) 두심매운재 (提) 명열
5만원: (文) 광우, 재호 (按) 태봉 (冀) 의규
3만원: (冀) 용해
2만원: (冀) 재환
1만원: (冀) 태원
계: 660,000(원)

◎ 장학기금

5만원: (文) 재호
계: 50,000원

◎ 통상회비 (2006.5.16~8.25)

5만원: (提) 태환

3만원: (典) 경희, 선동 (文) 명희 (大) 태균
(提) 상식, 규영 (按) 영식, 용주
(冀) 태룡, 점봉, 태서, 재성, 재복, 무명1

2만원: (郡) 홍복
(典) 재은, 수영, 인희, 재석, 병만
(副) 수일 (文) 광열, 재호
(郡) 해수, 영복
(提) 규발, 경음, 호식, 재용
(按) 재경, 성희, 영준
(冀) 선희, 윤환, 재욱, 도식, 상용
대석, 정준, 태근, 태철, 준희
(?) 형식, 무명1

1만원: (文) 수석 (郡) 공희 (冀) 성희
계: 1,040,000(원)



〈환수원 공신교서〉

경매도록에서 발견하여 동대학에 객원교수로 와 있던 한국의 김승준 교수(한국학 중앙연구원 재직)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초 공개되었고, 김승준교수가 즉시 총무공 김시민 기념사업회(회장 허용기), 진주국립박물관, 안동김씨 홈페이지 관리자(김항용)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보함으로써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교서의 반한 작업은 일본 교서 소장자의 1억 2천만원 요구액을 마련하지 못하여 7개월 동안 지연돼 오다가 금년 6월, MBC문화방송국의 〈느낌표-위대한 문화유산 74434〉팀에서 이 긴박한 문제를 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TV 방영 및 성금 모금 운동과 환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여러 매스컴에서도 이 문제를 연이어 발표하자 진주시민단체, 전안시민단체, 김시민 기념사업회, 우리 안동김씨문중회 등을 포함한 전국적인 모금운동으로 확산되었다. (KT)와 (다음)에서 각 2천만원, (대교메테스)에서 1천만원, 진주시민단체에서 5백만원, 기타 국민 약 3천여 명 등이 참여하여 약 1억3천여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다. 드디어 7월 24일에는 일본에 있는 교서를 환수 받아 오게 되었고 이날 고유제를 올리게 된 것이다. 환수 직전의 이 교서는 일탄때 조선을 공격한 한 일본 장수의 기념 사업회 개인 박물관에 매각하기로 예약되어 있었다. 이 교서는 8월 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후 진주 박물관으로 이관되어 10월부터 상설 전시될 예정이

다.

이날 홍식 대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BC 및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전국의 성금모금 참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 모금 행사가 우리 문중에서도 적극적인 동참하여 총1천6백3십1만9천원을 모았는데 1차 모금액인 8백9십4만9천원은 지난 7월 21일 MBC에 전달했고, 나머지는 추후 진행될 총무공 김시민장군 관련 사업비로 대종회에서 특별 관리하여 사용키로 했다. 우리 문중회의 고유제 참석자와 성금 모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고유제 참석자 명단

1. 대종회(4) : 홍식회장, 관목사 무충장, 태극감사
2. 각파 및 지역 회장단(10) : 학용-문영공파, 영용-밀직사사공파, 영목-제학공파, 영만-안렴사공파, 재용-익원공파, 수진-정의공파, 춘교-인천종친회, 재만-대구청장년회, 두용-제학공파비안공문중회, 천용-제학공파병천문중회
3. 안동김씨사이버학술연구회-13명
3. 제학공파 과산, 청주, 병천 중중-약 60여명
4. 서울 및 기타지역-약 30여 명

*성금 모금 내역

- 총액 16,319,000원
*총 참여수 : 단체-19개 종친회, 개인-63명
1. 200만원 : 문영공종회, 제학공파 종회

2. 1백1십1만9천원 : 안사연(안동 김씨 사이버 학술연구회)
3. 100만원 : 대종회, 제학공파 능촌종중, (按)홍식(대종회장), (按)태인(명예회장)
4. 50만원 : 문은공파종회, 익원공파종회, 청주종친회, (按)우암 김주선생기념사업회 (按)효식(총무공 종손)
5. 20만원 : 도평의공파종회, 안렴사공파종회, (都)분회
6. 10만원 : 안동시종친회, 경북북부지역종친회, 인천종친회, 충주문재사공종중, 대구청장년회, 군사공파종회, (書)상호, (典)춘교, (按)재영, 황간대교교수공파, 안렴사공파독사공, 안목, (提)산청종중, 상전, 규팔, 상



〈고유제 봉행 장면〉

-기사 제공자 : 恒鑑(提)

翼元公派宗會長 人事



오늘 우리의 대거이신 翼元公 할아버님의 不祧廟 重建事を 마무리 하고 뜻깊은 竣工式을 갖게 됨에 있어 먼저 重建에 心血을 다하신 高敎 門下 錄燈 通德郎公 門下의 勞苦에 監事와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工事 多忙하심에도 오늘의 慶事에 祝福을 위하여 參禱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道藏院 儒林 人事와 이 地域 有志 여러분과

우리의 大祖이신 翼元公 할아버님의 不祧廟 重建事

宗親諸賢에 眞心으로 感謝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翼元公께서는 靑史에 나태남과 같이 朝鮮朝에 入朝하시어 赫赫한 功勳으로 兵曹典書 鷹揚衛上護軍 開國一等勳에 追錄되시어 食邑 一千戶 食實封 三百戶를 받으시고 後에 龜忠狀義 佐命同德 開國一等定社 三勳을, 太宗朝에 推忠協贊靖難定社功臣 大正韓國宗祿大夫門下左政丞 兼 節經監 春秋館事를 拜受하시고 爵位는 上洛府院君에 이르셨으며, 諡號는 翼元에 封해지셨는데 西紀 千四百二十年十月에 官職을 辭任하시고 西紀 千四百七年 陰 七月 三十일에 逝去하시니 享年 六十七歲 이셨으며, 官職에서 물러나실 때까지 한번도 彈劾을 받은 일이 없으셨음을 靑史의 記錄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公이 歿하니 太宗이 賜 監書鐵卷하고 享 不祧廟를 내리니 影效를 卽山廟同에 奉安했다는 記錄이 있으나 年代와 記錄이 詳細하지 못하여 疑點을 辨입니다.

歲月이 悠久하니 不祧廟를 重建한 이 몇 번을 거듭하여 마침내 이곳 道藏院 後院의 陽地 바른 곳에 不廟를 重建하고 萬子孫이 六百萬을 맞게 됨은 할아버님의 遺蔭이 내리고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時代가 變遷하여 生을

圖謀함이 어려운 때이오니 할아버님의 蔭德이 있어 오늘날 우리 後孫들이 喜悲哀樂을 吟味하며 榮華를 누리고 있음을 知覺하시고 祖上 선기기를 疏忽함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다시한번 이 地域 儒生 여러분과 有志諸賢께 感謝드리고 특히 高敎 佐郎公, 錄燈 通德郎公 두 門下의 勞苦에 感謝드리며 先靈의 榮光이 代代로 이어지기를 祈禱하면서 頭書함이 人事에 가름합니다. 感謝합니다.

西紀 2006年 8月 22日

安東金氏 翼元公派宗會長 金在瑈

익원공 감사형 不祧廟(부조묘) 중건 준공식



재광종친의 사회로 식순에 의거 개회선언, 간담사 무극장의 경과보고, 유공종친에게 공로패 수여, 내빈 소개가 있었고 대종회 홍식회장, 익원공과 재용회장의 축사와 이광수 고창 군수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서 테이프 절단과

부조묘현판 제막식을 갖고 一部 행사를 마쳤다.

이날 공로패와 부상을 받은 종친은 고창 金三郎, 金義業 현종이다.

二部순서로 오후 9시 부조묘 신주 영정 봉안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分定은 다음과 같다.

초현관에 익원공과 재용회장, 아현관에 대종회 홍식회장, 종현관에 안림사공과 영만회장이 헌작하였고 측관에 대종회 명회부회장, 집례에 익원공과 익회의전부장, 집사에 재광, 문원부회장이 수고하였다. 이날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멀리 안동시 종친들을 비롯하여 대구, 광주 부여 답친종친들이 많이 참석하였으며, 대종회 홍식회장, 태육갑사, 안림사공과영만

회장 서윤관정공과 상호이사장, 철호 사무국장, 성식대종회부회장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또한 廟庭에 植樹를 할 예정이었으나 계절적으로 맞지 않아 來年에 植樹하기로 하였다.



지난 8월 22일 오후 2시 30분 전 북고창군 공음면 감촌리에 위치한 도암서원(영모당) 後燈(후등)에서 종친 및 내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조묘 중건 준공식을 가졌다.



〈1차 상륙지인 코모다 전투지에서 고유제 봉행을 마치고〉



〈충렬공 영정이 있다는 원통사 앞에서〉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연구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2박 3일간 자체 연간계획에 의거하여 충렬공 일본원정로 답사계획의 제1차 행사인 대마도 답사를 실시하였다. 이 답사는 고려종엽에 2차(1274년, 1281년)에 걸쳐 고려와 원나라가 연합하여 일본정벌을 감행할 때 고려군의 도원수로서 참여하신 증시조 충렬공(淸方慶)과 도첨의공(淸 衍), 문영공(淸 衡) 선조님들의

안사연의 대마도 충렬공선조님 유적지 탐방대회 실시

유업을 살피고자 안사연에서 일찍부터 기획하여 추진해 왔던 행사이다.

총 7명이 참여한 일행은 서울역에서 KTX열차로 부산역에 도착, 광안리 인근에서 1박한 뒤, 이튿날 아침 싸출라워 배를 타고 약 3시간 30분만에 대마도 이즈하라항에 도착했다. 관광사의 기존 코스를 충렬공 유적과 관련한 별도 코스로 변경하고 답사길에 오른 일행은 자체에서 제작한 답사 해설서

를 기초로 하여 충렬공 소설을 집필하신 봉석(익, 在行)종친의 현장 해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여정은 이즈하라의 팔변궁 신사, 조선 봉신사의 속소인 고려문(高麗門), 고종의 딸 덕혜옹주 유적인 이씨왕조 결혼 봉축기념비, 여몽연합군 첫 상륙지인 코모다(사스우라, 佐須浦), 여몽군에게 죽은 대마도주의 묘소가 있는 법청사, 여몽연합군에게 희생당한 전사자를 위령하는 코모다신사(小茂田濟神社)를 거쳐 1차 공격시 코모다 지역의 강줄기를 따라 진격하던 곳인 금전소학교(金田小學校) 앞에서는 충렬공께 올리는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이어 최익현선생의 순국비가 있는 수원지(修善寺)를 지나 대야호텔에서 숙박하였다.

이튿날 1905년에 만든 거대한 인공운하인 만제키바시(萬濟橋), 에보시다케(烏帽子) 전망대, 신라인의 전설을 안고 있는 와타즈미(和多都美)신사를 거쳐 조선봉신사 이에(李藝-학성인)의 기념비가 있으며 충렬공의 영정이 있다고 전언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통사(圓通寺)에 들려 영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러나 아침기도 주지스님의 장기 출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어 조선역관순란비가 있는 전망대를 끝으로 일정을 마치고 하다가즈항에서 부산으로 돌아왔다.

이후 대마도 원통사에 있다는 충렬공 영정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은 주지스님과의 전화 통화 방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답사 참가자 명단(무순) : 봉석(익), 상석(제), 주회(안), 태우(군), 태영(군), 향용(제), 권호순(안동인)



〈코모다 신사에서 여몽군의 일본 공격을 설명하는 봉석종친〉

안사연의 제5회 여름캠프 성황리에 실시



〈송의전 총렬공 고유제 봉행장면〉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연구회)의 제5회 여름캠프가 지난 8월 19일부터 1박 2일간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연천과 파주 일대에서

참배하는 각 선조님께서는 안동김씨 문중회의 단행행사로는 처음으로 고유



〈송의전 총렬공의 고유제를 마치고〉



〈경순대왕릉 앞에서 고유제를 마치고〉

성황리에 실시되었다. 지난 2002년 여름부터 연속 실시해 온 이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조님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송조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효의 실천과 우리 고유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태영종친(군)의 주관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의 송의전, 경순왕릉, 대안군영단, 파주시의 자문서원, 반구정 등을 답사하

고 아울러 군사공과 칠정문중의 장학행사에도 참여하였다.

참배하는 각 선조님께서는 안동김씨 문중회의 단행행사로는 처음으로 고유제를 봉행하기도 했는데, 새로이 개발한 현대식 약식 홀기와 한글식 제문을 사용하였고, 현관분정은 송의전에서 안사연 중심, 경순대왕릉에서는 군사공과 칠정문중 중심, 대안군 영단에서는 대종회 중심으로 편성하여 공손하고 경건하게 제례를 올렸다. 특히 홍식 대종회장님이 초헌관으로 모신 대안군 영단에서는 제문을 통하여 우리 문중회의 최대 과제인 대안군(휘 효인)에 이르기까지의 모호한 선계대수(先系代數) 문제를 확정짓고, 이들 선조님들에 대한 영단을 건립하는 활동에 적

*행사 참여자 명단(32명)

대종회 - 홍식 대종회장, 성회 전부회장, 춘교 인천총친회장, 관목 사무총장
군사공과칠정문중 - 재석 고문, 종목 회장, 창희 부회장, 용희 총무, 재현 이사
안사연 - 〈군〉재구(1남·민회), 발용(회), 완희, 태우, 태영(부인, 1남·재하)
〈문〉영환(2남·장목, 홍목), 윤만(회), 1남·태경, 광도(태행, 문운공중손)
〈도〉정중(식행, 부인, 1남·용정)
〈제〉상식(재행), 향용(식행, 부인)
〈안〉용주, 영식(1녀1남·효선, 형민)

*각 선조님 고유제 분정표

구 분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축 관	좌집사	우집사	집례
1.송의전	태영	윤만	상식	향용	용주	태우	영환
2.경순대왕	재석	종목	창희	향용	용희	재구	영환
3.대안군	홍식	관목	광도	향용	용주	영식	영환

*청소년 백일장 수상자

장원:홍목(문), 차상:태경(문), 우수상:장목(문), 효선(안), 형민(안)

식 등을 익히고 다지며 친목도 돈독히 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튿날 11시에는 파주시 문산읍 스마일 웨딩타운에서 군사공과 칠정문중의 장학금전달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무려 500여 명의 종친들이 모여 68명의 문중내 고등학생부터 대학원생들에 이르기까지 약 8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면을 보았다. 또한 칠정문중

개는 명절시 세대별로 선물을 우송한다는 놀라운 발표를 하는 등 우리 전 문중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문중운영 모습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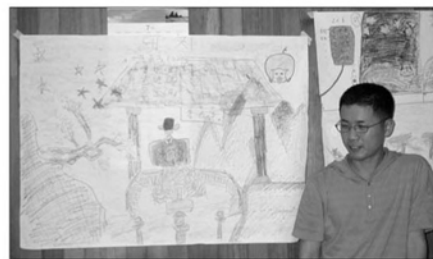
오후에는 조선조 세종조의 명신인 황희정승이 만년을 지낸 반구정을 답사한 후 행사 참여자 전원에게 이수증을 주고 청소년들에게는 체험활동 확인서를 배부하였으며, 상장과 상품을 전달

하는 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해산하였다.

행사중에는 여러 분에서 행사 격려금을 주셨는데 홍식 대종회장님께서 50만원, 군사공과 칠정문중회에서 1백만원, 창희 칠정문중 부회장에서 1백만원을 주셨다. 또한 광명관광의 옹희(안)총친께서는 행사기간 버스 1대를 무료로 제공해 주셨다. 안사연에서는 이에 깊이 감사를 드렸고 앞으로 이 격려금은 각종 활동에 귀중하게 활용하기로 했다.



〈대안군 영단 고유제를 마치고〉



〈나는 누구인가? 주제발표 경연대회 장면〉

의 종목회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만 65세 이상의 원로종친들에게는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줄 것이며 전 종친들에

제1회 안동김씨 군사공파 칠정문중 화합 한마당 잔치



〈인사말을 하시는 칠정문중 김종욱 대표〉

군사공파의 칠정문중에서는 지난 8월 20일(일) 오전 11시, 문신역 앞의 스마일 웨딩타운에서 장학금 지급을 겸한 제 1회 〈안동김씨 군사공파 칠정문중 화합 한마당 잔치〉를 성대하게 열었다. 오후 문중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넓은 행사장에는 장학생과 그 가족 4백여 문중 종친들로 대성황을 이뤘다. 개회선언과 선조님에 대한 묵념에 이어 화합을 알리는 화합 주 건배로 식이 시작되었다. 내빈 인사 소개에 이어 칠정문중 종목 화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런 '종친

가족 대화합의 축복잔치'를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상님들의 큰 음덕과 뿌리의 올바른 진의를 찾기 위해 솔선 노력해 오신 원로 종친 여러분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장학금 수여 순서에서는 미래의 안동김가를 빛내고 나아가 대한민국, 세계를 빛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후손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선발된 68명의 장학생들에게 8천 여만원의 장학금을 골고루 지급하

였다.

또한 제5회 여름캠프 일정 중에 참여한 안사연 팀은 영한 종친이 대표로 종목회장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았으며, 이어서 향음 종친의 안동김씨 홈페이지와 안사연 소개를 끝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모두 뷔페식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식사 시간을 겸한 2부 이벤트 행사에서는 칠정문중의 머슴님인 국악인 '안화진'씨(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호)가 그의 문화행을 대거 이끌고 행사에 출연 하였다. 재역 종친의 쌍둥이(선화, 은화)

4명의 종친 아들들이다. 놀랍게도 행사에 참여한 모든 연예인들이 칠정문중에 속해 있는 종친들이었다.

칠정문중은 이미 지난 10여년 전부터 칠정장학회 설립하고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종중 규약을 정비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원로종친들에게는 일 정금의 연금이 수혜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전 문중 종친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 등으로 가히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문중이라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칠정문중에서는 소문중 11개 지파를 슬기롭게 통합하여 '안동김씨 군사공파 칠정문중회'라는 명실상부한 통합 문중회를 구성하였다. 이런 화합의 문중회를 만들 기까지에는 많은 파란 곡절과 고초가 있었으

나 종목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 기사 제공자 : 泰榮(都)



〈장내를 가득메운 문중 종친들〉

아들로 구성된 B-boy가 출연했는데 이들은 방송가에도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 댄서들이며, 음악 연주팀들은 오후 총무의 아들로 현 군복무 중인 태경, 태범을 포함한

충렬공(휘 方慶) 소설 출판 및 하담공(휘 時讓) 논문 발표



좌·〈김봉석 저 충렬공 소설〉
우·〈하담 김시앙 학위 논문〉

지난 6월 30일, 온 종친들이 고대하던 중시조 충렬공 선조님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붉은 바다 김방경 열전〉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대구의 봉석종친(익, 在行)께서 12년간의 집념과 노고 끝에 대양출판사에서 간행한 이 소설은 총 373P의 종편소설 분량으로서 방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제작되었다.

이 소설의 작가 봉석종친은 익원공의 19대손(효소공 휘 작의 16

대손, 퇴장공 휘 한동의 12대손)으로서 현재 대구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12년 전에 본 소설의 집필을 계획하시고 약 10여 년 간은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2004년부터 2년간은 운영하시던 회사를 직원들에게 넘겨주고 심혈을 기울여 이 소설을 완성한 것이다. 이 소설은 일본의 대표적인 여몽 일본 원정 관련 전쟁역사서인 팔만우동기와 중국의 원사(元史), 고려사, 고려사절요, 한·일·중 3국의 각종

관련논문 등 방대한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는데, 동북아시아 최대의 전쟁이었던 여몽연합군의 일본정벌 내용을 3국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술한 역사서를 바탕으로 삼아 형상화(形象化)한 대표적인 전쟁 역사소설로서 우리 모두의 필독서이기도 하다. 현재 제 2판을 준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시판할 예정이다.

*도서 공급 문의처 : 02)3273-3867

아울러 지난 7월 말에는 단국대학교 한문학과에서 〈하담 김시앙의 시세계 연구〉란 주제의 석사학위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연구자인 김순희(金順姬)선생께서 지난 2001년 제학공파 비안공문중회에서 발간한 〈하담 김시앙 문집〉(김익수 역, 김향용 편집,

미래문화사 간)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지난 2년간 문집 내의 시문(詩文)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한 것이다. 지난 8월 13일에는 안사연 정기산행에서 소화술발표회와 논문발표 축하행사도 가진 바 있는데, 이날 김선생은 현재까지의 한문학 연구가 대체로 몇몇 대가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음을 지적하고 명인이 아닌 작가들의 연구도 병행돼야만 올바른 한국 한문학사의 정립이 가능하다는 문학사관 아래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박사학위 논문을 통하여 하담의 시문 부분만이 아닌 산문까지 포함한 전 작품들을 연구 분석하여 하담의 문학적·정신적 특성과 가치점을 밝히고, 조선 중기 하담의 정치적·역사적 위상도 함께 조망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기사 제공자 : 恒鏞(堤)

